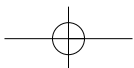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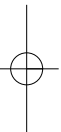


# 복음의 능력으로 섬기고 제자를 삼는 평신도

평신도 월례회 공과

2010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 편집을 마치면서

## “복음의 능력으로 섬기고 제자를 삼는 평신도”

우리 사회가 세계경제의 파동으로 휘청거리는 한 해를 잘 이겨내고 새로운 희망과 열정으로 2010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리회에 몰아쳤던 감독회장 선거후유증으로 겪는 혼란과 아픔도 새해를 맞아 잘 정리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과 2010년의 총 주제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의 사명을 다하는 평신도”라는 목표 아래 2010년의 주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섬기고 제자를 삼는 평신도”라고 정하고 이 목표를 향해 한 해 동안 열정을 쏟아 공부하고 이를 실천하는 생활로 힘차게 달리며 출발합니다.

21세기, 더욱 다원화되어가는 사회특성 때문에 교회의 전도율이 성장을 멈추는 안타까움을 안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하는 교회들이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가가도록 소그룹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회평신도국에서도 이에 맞춰 2010년도 공과를 주제에 맞게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내용으로 꾸미고 제 1단원은 소그룹과 인간관계, 제 2단원은 소그룹 리더의 영성, 제 3단원은 소그룹과 멘토링, 제 4단원은 소그룹과 전도라는 제목으로 구성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이론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

기에 누구든지 읽으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잘 편집하였습니다.

옥고를 주신 유영설 목사님, 박용호 목사님, 안석모 교수님, 김동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 편집과 감수를 하신 유영설 목사님과 김영동 목사님, 실무를 맡아 수고하신 박은애 부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공과가 널리 읽혀져서 평신도들께서 열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보람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0년 새해 한 해도 행복하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09년 11월

사회평신도국 총무 **엄 마 리**

# Contents

## 제 1 단원 소그룹과 인간관계 \_ 유영설 목사(영등포지방 문래동교회)

1과 소그룹의 중요성과 사역원리 (작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라) .....	9
2과 소그룹 리더의 자질 (당신은 영적 리더입니까?) .....	17
3과 소그룹에서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성도의 교제가 있는 믿음생활인가?) .....	25

## 제 2 단원 소그룹 리더의 영성 \_ 박용호 목사(수원장안지방 복수원교회)

4과 소그룹 리더의 예배 생활 .....	35
5과 소그룹 리더의 큐티 생활 .....	41
6과 소그룹 리더의 성품 훈련 .....	47

## 제 3 단원 소그룹과 멘토링 \_ 안석모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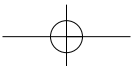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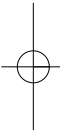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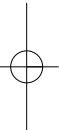
7과 소그룹 리더의 상담 .....	59
8과 소그룹 리더의 중보기도(멘토링) .....	67
9과 소그룹 리더의 심방 .....	75

## 제 4 단원 소그룹을 통한 전도 \_ 김동현 목사(대전동지방 제자들교회)

10과 소그룹을 통한 관계전도 전략 .....	85
11과 소그룹의 효과적인 코이노니아 .....	93
12과 소그룹별 관계전도 사례 .....	101

## ■ 존 웨슬리 목사의 3가지 삶의 규칙 .....

##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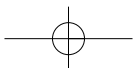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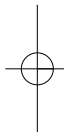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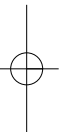


## I. 소그룹과 인간관계

- 1과 소그룹의 중요성과 사역원리  
(작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라)
- 2과 제2과 소그룹 리더의 자질  
(당신은 영적 리더입니까?)
- 3과 소그룹에서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성도의 교제가 있는 믿음생활인가?)

단원 1







# 1과

1단원 : 소그룹과 인간관계

## 소그룹의 중요성과 사역원리

(작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라)



목 도 다함께

찬 송 515장(구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사도행전 2:43~47

참고성경 마태복음 28:16~20

요 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7)

말씀증거 사회자

## 서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안의 소그룹을 활성화시킴으로 건강한 교회로서의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소그룹 중심의 목회’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그룹 활성화’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성숙한 평신

도들을 세워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의 효과적인 목회 방법으로서 ‘소그룹 목회전략’이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소그룹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의 교회론이 소그룹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시대적인 환경이 소그룹 목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교회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자연적 교회성장’이라는 책에서 성장하는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을 8가지 질적 특성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교회안의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전인적 소그룹은 성경말씀을 토론하고 해석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도록 만드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소그룹이 현대목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며, 교제를 통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임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 하는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생활에서 소그룹의 중요성과 소그룹의 아름다운 경험을 위하여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 1. 배움이 있는 모임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도의 가르침”은 소그룹 공동체의 전형

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를 희랍어 원문에서는 문자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임에는 경건과 진리에 의한 비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에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제와 희생적 사랑, 기도하는 소그룹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회활동 기회가 많아져 크고 작은 모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임들을 통해서는 치유와 회복, 사랑과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초대교회의 모임은 성도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소그룹 안에서 영적체험을 할 수 있는 공동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허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바쁘다는 이유로 신앙 공동체의 영적체험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희생적 사랑,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소그룹 모임은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신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모임은 생명력이 넘치고 변화가 일어나며 인생에 대한 비전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 2. 교제가 있는 모임

우리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소그룹은 가르침에 근거한 교제, 말씀에 근거한 교제를 합니다. 이런 교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서로 함께 하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믿는 사람이 다함께 있어”란 지속적으로 함께 모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믿는 사람이면 이 모임에 빠지지 않고 모였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모임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게 했는데 교제의 중요 요소는 ‘함께 있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 자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은 힘과 위로가 됩니다. 게리 채프먼(Gary Chapman)은 자신의 책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사랑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필요가 교회 안에서 소그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산업 사회의 바쁜 일상,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사회에서 과학 기술의 발달은 삶의 풍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인간 소외와 무관심이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마저도 혼자 외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관심과 사랑, 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필요를 공급하는 교제”입니다. 이것은 함께 하고 있는 자들과 물질적, 정서적으로 교제하는 것인데 억지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급했습니다. 본문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행 2:45)고 했습니다. 교제가 깊어지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나눔과 섬김은 함께 하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와 함께함으로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과도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존재를 높여 주셨습니다. 셋째, “기쁨의 잔치가 있는 교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밥상공동체를 통하여 같은 음식을 같은 시간에 나누며 교제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소그룹 공동체는 교제의 친밀감과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그룹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요, 우리가 소그룹에 소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3. 전도하는 모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 구원을 간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셨으며 이와 동일한 사명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따라서 우리의 복음전파는 지역과 인종의 구별 없으며,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문제는 일방적인 복음 선포, 설득전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삶의 양식, 자유분방한 사고와 표현,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려면 먼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새로운 전도방법으로서의 소그룹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보이는 현재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천국의 삶을 눈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본문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교제하는 모임의 아름다움을 본 불신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의 경험은 칭찬과 인정, 관심과 참여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지역 사회에 올바르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칭송받는 교회, 이것이 소그룹의 목표입니다.

## 결론

지금 세계교회는 다양한 소그룹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 의해서 교회의 역할과 기능, 교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배우고 실천하는 현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그룹은 교제와 교회개척이라는 특성으로 운영하며, 소그룹에 참여한 사람의 생각, 느낌을 성경 속에 이입시켜보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가정교회라는 소그룹은 내적치유와 소그룹의 세포분열에 초점을 두며,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감리교회의 소그룹을 속회라고 하는데 돌봄,

교제, 영적성장(기도, 말씀, 찬양)이 있는 소그룹 모임의 원형입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돌봄, 교제, 영적성장을 경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을 나누고 변화가 일어나는 소그룹이어야 작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작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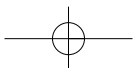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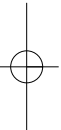
####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현재 우리교회 소그룹의 특징과 운영의 장점을 이야기기 해봅시다.
- 2)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영적 성장과 돌봄 그리고 전도사례를 이야기해봅시다.

**찬 송** 347장(구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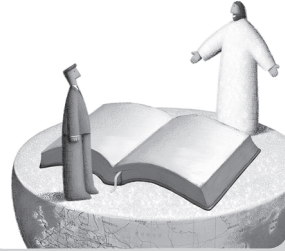


## 2과

1단원 : 소그룹과 인간관계

# 소그룹 리더의 자질

(당신은 영적 리더입니까?)



목 도 다함께

찬 송 331장(구 375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디도서 1:5~9

참고성경 디모데전서 4:6~8

요 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딤후 1:9)

말씀증거 사회자

오스왈트 샌더스는 리더십이란 영향력,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 곤충 등 공동체나 집단을 이루는 생명체들은 모두 리더가 있습니다. 이 리더의 영향력에 따라 공동체와 집단이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리더가 공동체와 집단에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면 훈련되고 준비된 리더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리더는 그 모임을 발전시키고 성장케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리더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영적인 리더로서 어떤 준비를 해 왔느냐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리더와 보통사람의 차이는 혈액 중에 세로토닌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신경의 신호전달 물질의 한가지로 뇌나 신경의 움직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은 수면의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들은 원숭이 무리의 혈액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원숭이 우두머리의 혈액 속에는 일반 원숭이의 2배가 되는 세로토닌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실험은 대학의 동아리 활동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학생과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했더니 결과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원숭이나 사람이나 누구든지 리더가 되면 세로토닌의 양이 점차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자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의 소그룹 리더로서 세워지기 위한 자신의 영적 세로토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건강한 자화상이 있는 리더

건강한 자화상(Self-image)을 품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자화상이란 스스로 보는 자신의 상(像)을 말합니다. 자화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비하하고 무가

치하게 여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과 긍지를 갖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열등한 것을 찾게 되고 밖으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자화상이 생각나서 인터넷에서 그림을 찾아보았습니다. 6개의 자화상을 보았는데 모두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심각한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화상에서 삶의 의지와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고흐는 37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자화상에 나타난 이미지는 고뇌와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은 초대교회시대의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직무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권면과 책망”은 칭찬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생활이 모범되고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권면과 책망은 도덕적, 윤리적, 성품이나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는 자가 해야 합니다. 특히 감독은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화를 내지 않는 자이며, 술을 먹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덕목으로 볼 때 영적 리더들의 인격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영성인데 자기의 자화상이 되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는 어떤 상황도 잘 소화해 낼 뿐 아니라 섬기는 자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자화상이 병든 사람일수록 쉽게 상처받고 마음의 분노를 나타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화상이 건강하면 무슨 일을 맡겨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넉넉히 소화해냅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진 영적인 리더가 권면과 책망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밝고 긍정적인 자화상이 필요합니다. 자화상이 건강한 리더의 책망과 권면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반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 2. 절제 훈련을 하는 리더

우리는 세워진 일꾼을 통해서 어떤 기대와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리더가 된 사람은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로 세워진 사람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능한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잘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받기를 원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이 많다면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소그룹 리더가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려면 영적 훈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리더의 재능은 영성에서 나와야 하며, 리더는 영성이 고갈되지 않도록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영적 리더라는 직함의 권위로 사역을 대신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교회의 영적 리더들에게는 절제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인격의 영

성은 모두 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겸비하려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분주하고 몰입했던 것을 중단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리더들 중에 모세, 다윗, 솔로몬, 삼손 등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이 있었으나 자기 절제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하면 하나님께서 보다 큰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절제하려면 훈련이 있어야 하며, 절제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 리더들은 절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고자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때에 따라 금식하고 검소한 생활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 본능, 육체를 다스리는 것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영적 리더는 절제하는 자로 인격과 행위의 모범이 되는 자입니다.

### 3.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내가 가진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더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 보아야 합니다. 영적 리더는 소그룹의 구성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더들은 기도하

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남이 가지지 못한 유능한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사역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유익을 위한 리더가 되고 교만해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사역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영성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 속에 나타난다는 뜻인데 성경의 리더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 헨리 블랙가비(Henry Blackaby)목사는 리더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영적 리더가 되려면 성령 충만이 필수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기도의 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 졸업장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가 되기 위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소그룹 리더로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 결론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로 사역하도록 직분을 주시고 소그룹 공동체에 책임을 맡기셨는데 내 재능과 힘으로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영적 자질이 온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리더로 세워진 후에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려고 훈련하고, 리더로서 절제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가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세우실 때는 누군가를 위해 영적 성장을 돕는 리더가 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영적 성장을 가져 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를 도와 준 사람은 역시 영성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로 부름 받은 사람, 리더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리더의 자질을 겸비하도록 영적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성경공부, 예배, 봉사, 기도, 교제, 겸손 등을 소홀히 하지 말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 리더가 먼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야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소그룹 리더가 어떻게 자신의 자화상을 훌륭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말해봅시다.
- 2) 소그룹의 영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지도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 송** 315장(구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 3과

1단원 : 소그룹과 인간관계

## 소그룹에서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

(성도의 교제가 있는 믿음생활인가?)



목 도 다함께

찬 송 220장(구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로마서 15:1~7

참고성경 갈라디아서 5:13~15

요 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롬 15:7)

말씀증거 사회자

교회의 4대 기능중의 하나인 코이노니아(koinonia)는 교회를 한마음과 한 몸이 되게 합니다. 희랍어인 코이노니아는 친교, 사귄, 관계, 동반자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교제가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 12제자와 70인을 파송하시면서 신앙공동체에서 나누고, 섬기며,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 안의 교제는 예수님의 제자 비전이 아니라 놀이하는 모임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어 교회 안에서 소외와 차별,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런 모임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게 됩니다.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의 소그룹은 코이노니아의 영적 의미 안에서 온전한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타내고자하는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지 말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건강한 소그룹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모임에는 사랑을 본질로 한 코이노니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 안의 소그룹 모임이 나타내야 할 교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교제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모든 조건이 똑같아도 우열의 문제는 항상 나타납니다. 세상에는 차이의 문제가 심각해서 갈등과 소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열정이 있고, 말씀과 기도예 의지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소외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

은 나라, 좋은 사회는 모두 함께 공존하는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시민사회의 모습이요 인간성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자 10%가 75%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하위 50%의 사람들은 1%의 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믿음이 강한 자가 할 일은 모든 권한과 기회를 소유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능력 있는 자이며, 영적으로 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마땅히 할 일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갈 6:2)고 말씀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교회 안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교제입니다.

세상에서 절망과 좌절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공동체에서 또 다시 그런 경험한다면 약한 자들이 공동체를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인정하며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새 공동체에서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한 자와 함께 나누고, 돕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처럼 소그룹에서만 보살핌과 돌봄의 사역이 잘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믿음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그

룸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은 모두 돌봄과 보살핌의 대상입니다. 이 지체들을 세워가는 것은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 2. 함께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교제

개그맨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과 의미가 있는 사람들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제공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므로 즐겁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려고 온갖 몸짓과 언어를 통해서 자기 역할을 해냅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통하여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즐겁고 기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화나게 만들고,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도록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것은 소그룹에서 해야 할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유익을 주면서 덕을 세워야 한다.”(롬 15:2)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남의 기분을 맞추라는 뜻이 아니며, 남이 원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공동체의 형제자매가 된 사람의 영적 각성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기꺼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소그룹 안에서는 자기 문제를 기꺼이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삶을 나누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문제에 함께해 줄 영적 멘토가 있어야 성장과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놀러가며, 함께 음식 먹고, 함께 시장에 다닌다고 친밀한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공동체의 소속감과 경험 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와 연약함, 그리고 아픔을 나누고 치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 모임이며, 이와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 3. 소망을 갖도록 하는 교제

얼마 전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불황기에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반면 일본 사람들은 책을 사서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고통을 알코올에 의지해 잊으려고 하는 반면 일본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사람들은 최악의 위기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으로 극복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Storytelling”은 어떤 사실, 정보, 목적 등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힘든 삶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을 물으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힘들다, 어렵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는 삶의 비전이 없으며, 영적으로 소망을 가질만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망 있는 사

람은 현재의 삶에 성실하며 열정이 있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중국선교를 갔을 때 우울증에 걸린 두 분이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우울증이 많다는 것이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울증이 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말씀이 주는 인내와 위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인내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용맹스런 군인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신앙에 대해 충성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 많은 세상에 시달린 영혼들은 교회의 소그룹을 통하여 인내와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내와 위로의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만난 사람들이 성경말씀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그룹에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결론

우리는 오늘 신앙공동체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의 형편을 너무 깊이 알면 상처받고 실망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나 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공동체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공동체가 부족하고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겠으나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소그룹을 통한 진정한 만남과 교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서로”라는 부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 안에서 함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종속적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신앙의 의무와 도리는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엡 4:25~32), ‘서로 용납하라’ (롬 15:7), ‘서로 종노릇하라’ (갈 5:13~15), ‘서로 기도하라’ (약 5:13~18)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을 통한 교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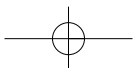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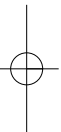
####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지금 우리 소그룹 공동체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 2) 소그룹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나누는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찬 송** 570장(구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 Ⅱ. 소그룹 리더의 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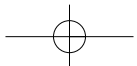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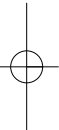
4과 소그룹 리더의 예배 생활

5과 소그룹 리더의 큐티 생활

6과 소그룹 리더의 성품훈련

단원 2





## 4과

2단원 : 소그룹 리더의 영성

## 소그룹 리더의 예배 생활



목 도 다함께

찬 송 310장 (구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열왕기상 3 : 3~15

참고성경 요한복음 4 : 1~24

요 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상 3 : 9)

말씀증거 사회자

보통 사람들은 비전이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비전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리더는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리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로 인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절망과 침체로 이끌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가 어떤 예배생활을 하는가는 그 소그룹의 성격과 성장, 그리고 소그룹 구성원들의 신앙생활을 결정합니다.

## 1. 문화화된 예배 - 서유럽의 현실

지난번 종교개혁지 순례를 갔을 때 영국과 독일 그리고 스위스를 돌아보며 우리 일행들은 미래의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70%가까이 된다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는 이들은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여러 교회들의 선교전략은 문화와 사회봉사에 힘쓰다보니 영성이 전혀 없는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는 모습이라고 안타까워하는 가이드의 말을 들으며 예배의 생명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들의 예배생활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문화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반영시키면 감동 없는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고 하신 말씀대로 예배의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 2. 형식화된 예배 - 영적인 능력이 없는 예배

(변화가 없이 축복만 추구하는 샤머니즘적인 모습)

옛날에 시골에서 살다가 모처럼 서울 방문을 한 시골 노인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살기에 이 노인을 모시고 나들이 나갈 친척이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들이 하루는 ‘심심하실 텐데 극장 구경이나 하고 오시라’며 돈을 드려 외출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며 집을 나선 노인은 극장구경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집을 나선지 30분이 채 안되어 돌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아니, 왜 벌써 돌아오십니까?” 그러자 시골 노인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한 서울 사람들도 어수룩한 데가 있더구먼. 아니, 글썄 내가 30분씩이나 여기 저기 극장 구경을 했는데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돈도 안받지 뭐야. 극장 구경 공짜로 잘 했어!” 극장 구경하고 오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극장 건물을 구경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싱거운 얘기 같지만 사실 교회도, 예배도 이렇게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예배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껍데기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인간의 종교 감정을 촉발하는 인간 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아니라 병 고치는 데 더 큰 비중을 두는 샤머니즘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기적인양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 3. 신령과 진정한 예배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솔로몬이 드린 예배(일천 번제와 기도)

예배는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소원성취를 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요?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군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갓 스무 살을 지나고 있는 청년의 때였습니다. 어린나이에 왕이 되어 막중한 대사를 감당한다는 것이 쉬워 보일 수야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좋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왕상 3:7~8)

자신의 절대 부족함을 자각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일천 번제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므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하곤 했습니다. 솔로몬도 당시 가장 큰 산당으로 알려진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일천 번제를 마치는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자신의 제사가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제사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친 다윗 왕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둘째, 지금 부족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은혜를 감사

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에 자신을 이어 왕의 자리에 앉혀 주실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의와 존경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함께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입니다. 다시 요약해 보면, 예배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고 말씀했습니다.

#### 4. 예배생활의 열매와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평생에 누리며 살게 될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첫째, 지혜와 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왕상 3:12)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둘째, 부귀와 영광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왕상 3:13)

셋째,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왕상 3:14)

소그룹 리더는 무엇보다도 예배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예배를 생활의 우선순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겸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그룹 리더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성과 소그룹 구성원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력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생활을 소홀히 하는 리더는 어떤 경우에도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솔로몬의 예배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솔로몬이 받은 지혜와 총명의 복, 부귀와 영광의 복, 장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우리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 2)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찬 송** 535장 (구 325장, 주 예수 대문밖에)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 5과

2단원 : 소그룹 리더의 영성

## 소그룹 리더의 큐티 생활



목 도 다함께

찬 송 534장 (구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시편 1 : 1~6

참고성경 마가복음 1 : 35~45

요 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 1 : 1~3)

말씀증거 사회자

시대를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광야에서도 꽃이 필 것이며, 사막에서

도 길과 강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더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방법은 큐티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큐티 생활은 영적성품을 다듬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 1.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막 1:21~34).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왔기에 잠시도 쉬실 틈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신 예수님이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막 1:35). 이것이 예수님의 큐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동네에 가지 않겠다. 나는 다른 마을로 가겠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는 곳에 있는 것

을 좋아합니다. 그곳은 이미 나를 인정해 주고 있기에 긴장도 없고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편한 자리로 돌아가기보다 힘들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기로 하셨습니다.

상황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큐티를 하지 않아 말씀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찾아 주는 곳, 자신이 인기 있는 곳에 가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큐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늘 깨어있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매일 이른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시간을 정해 놓고 큐티를 해야 하겠다는 각성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시간을 할애하여 큐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2.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큐티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성공, 리더십」의 저자 팀 한셀은 “어떤 크나큰 계기나 사건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다. 우리의 인생을 요술처럼 멋지게 만들어 주고 성공시켜 주는 것은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일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복되게 하는 것은 좋은 습관들입니다.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

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딤후 4:7)고 말씀한 것처럼 반복적인 지각사용 훈련을 통하여 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가야만 합니다. 큐티의 반복적인 훈련이 쉽지 않지만, 머지않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 세움을 입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골 2:6-7). 리더로서 효과적으로 회원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큐티가 익숙하도록 훈련을 거듭해야 합니다.

### 3.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영적인 생명은 수분과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그 뿌리를 바른 곳에 깊이 내려야 합니다. 나무가 딱딱한 흙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길이나, 돌밭이나 가시 떨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 뿌리를 내린다 해도 그런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잎이 무성하여 풍성하고 여유 있는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바른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큐티를 통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능력을 영양분으로 흡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예) 다윗이 위대한 영성의 사람이 된 이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행 13:22)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동인 다윗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시 42:1),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 하나이다”(시 19:1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등의 말씀처럼 비록 나이가 어린 목동이 었지만 자신의 최고 관심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worker)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예배자(worshiper)를 찾으십니다.

###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2) 큐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보세요.

**찬 송** 288장 (구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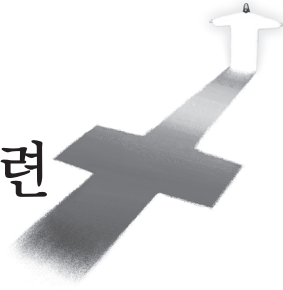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 6과

2단원 : 소그룹 리더의 영성

## 소그룹 리더의 성품훈련



목 도 다함께

찬 송 214장 (구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디모데후서 3 : 14~17

참고성경 갈라디아서 5 : 22~23

요 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 : 16~17)

말씀증거 사회자

성품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리더는 그 소그룹에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성품을 가진 리더는 성공과 축복을 얻게 합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가 카리스마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도, 그의 성품이 신실함과 강인함이 없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그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의 성품은 소그룹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만약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가 목자이기 이전에 양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지도 않으며, 일관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서 핑계를 거짓말로 둘러대기 시작하면 그 소그룹 모임은 부정적 영향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의 성품은 뿌리와 같은 것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의 어떤 기술이나 재능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 1. 성품은 어릴 때부터 훈련해야 합니다.

유전적인 성품이 운명적인 성품은 아닙니다. 연단과 훈련으로 성품이 빛나게 됩니다. ‘성품의 리더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리더가 세상을 파워풀하게 바꿀 수 있다’는 저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마 5:13~14).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품훈련의 시작은 “경



청과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자녀가 어린 시절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 자기 고집과 이기심을 다스리지 못하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좋은 성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흉내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인내하면서 가르치고, 훈련을 받을 때 소그룹 리더로서 좋은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 2. 소그룹 리더의 성품훈련

### (1) 생각훈련

한 사람의 생애와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실패와 어두움의 그림자만이 찾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생각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나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유난히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서 구름 한 점이 떠 있다고 불평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삶의 태도는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불평하는 자신이 불행해 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감사할 것이 생각납니다. 감사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만들어 줍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이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생각의 훈련을 통하여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면 어떤 문제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며 문제 안에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2) 보는 훈련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가진 부분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남의 장점을 잘 봅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만나면 웃어주고,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의 흠을 잘 봅니다. 앞에서는 아무 소리 없어도 뒤돌아서면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처음에는 잘 사귀다가 후에는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다 보아도 꼭 한 가지를 볼 수 없다면 우리 인생은 톱니가 빠진 톱과 같습니다. 톱니 빠진 톱이 제 기능을 못하듯이 한 가지를 볼 수 없는 인생은 할 일을 못하게 되는데 꼭 보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

나눔을 내 인생의 지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가며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 (3) 말하는 훈련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대 철인 제노 (Zeno) 가 귀가 돌이고 입이 하나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해야 함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거친 말을 마구 합니다. 잠언은 말을 절제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21:23, 10:19, 17:27~28).

특히 소그룹 리더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훈련되고 성숙한 리더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3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로 나타내는 것, 즉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그의 전 생활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에 말하는 훈련을 통하여 리더로서의 성품을 개발시켜야 합니다.

#### (4)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예배가 되지만, 듣지 않을 때는 마당만 밟고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했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롬 10:17)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며 소망이 있게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들을 줄 알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에서나 상담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듣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생의 비극을 자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는 감정 안에서만 받아들이기에 사실상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막 4:9, 23)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계 2:7)고 하셨습니다. 들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그룹 리더로 자신의 성품 개발을 위해 먼저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 (5) 순종훈련

출애굽기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7:1~6절 이후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귀감이 될 정도로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토를 달았습니다. 못하겠다고 버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건도 붙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속상하게 했고, 심지어 화나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출애굽기 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군소리 없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제야 훈련 과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7:6의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생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세를 지켜 나아가기 위해 순종 훈련을 해야 합니다.

### 3. 지도자의 성품이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그들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성품을 가졌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성품을 가졌습니다.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커서 우리보다 강하기에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민 13:26~33)라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소리 높여 곡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민 14:1~4)고 부정적인 한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민 14:6~9)며 긍정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고백을 기뻐하십니까? 부정적 고백을 한 정탐꾼과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긍정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긍정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정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

정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각자의 심령을 긍정의 성품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 ● 생각을 위한 질문 ●

- 1) 성품은 리더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 2) 리더의 성품에서 어떤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리더로서 내가 고쳐야 할 성품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찬 송** 380장 (구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토의및광고** 사회자

**주기도문** 다함께

